

Jewfri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89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2025년 2월 26일 | 발행인 문순덕

아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사회, 제주지역 노키즈존 실태와 시사점

손태주 · 오명녀 · 김주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가)

목 차

1. 연구개요
2. 제주지역 노키즈존 운영 실태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개요

- 우리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노키즈존(NO Kids Zone: 어린이 출입금지 구역) 문제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공공 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
- “노키즈존”이란 용어는 2014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등장한 신조어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업소를 의미함. 최근에는 성인고객을 배려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음(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2024)
 - 일부 부모의 비상식적 행동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특히 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과도하게 부여하는 법원 판결 사례는 이러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주로 아동 동반 고객의 소음 문제나 다른 고객들의 불편함을 이유로 일부 사업장이 노키즈존을 도입하고, 아동을 위한 대체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아동의 권리와 차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공간에 대한 반발 여론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노키즈존·키즈존 지도를 공유하는 웹사이트(<https://sites.google.com/view/yesnokid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는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20.4%가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경기도에 이어 제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노키즈존이 많은 지역임을 보여줌
-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노키즈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2024)를 활용하여 노키즈존 현황을 재분석한 후, 아이와 어른이 공존하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제주지역 노키즈존 운영 실태 분석

2-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제주지역 노키즈존의 운영에 대한 사업장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파악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 관련 정책에 대한 정책적 의견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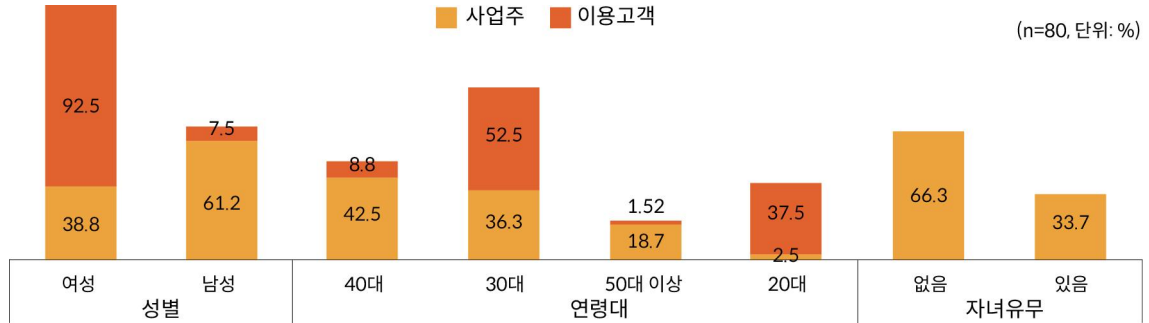
◆ 조사 방법 및 내용

- 조사대상 및 표본 수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키즈존 사업장 중 사업주 80명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문조사기관 조사원을 통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 조사 기간 : 2024년 5월 25일 ~ 2024년 6월 12일
- 조사 내용 : 사업장 운영 형태, 노키즈존 관련 제도 및 정책 인지, 정책 수요 등

◆ 응답자 특성

- 전체 응답 사업장 사업주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 : 남성 61.2%, 여성 38.8% 순임
 - 연령대 : 40대 42.5%, 30대 36.3%, 50대 이상 18.7%, 20대 2.5% 순임
 - 자녀유무 : 자녀 없음 66.3%, 자녀 있음 33.7% 순임
- 전체 응답 사업장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 : 여성 92.5%, 남성 7.5% 순임
 - 연령대 : 30대 52.5%, 20대 37.5%, 40대 8.8%, 50대 이상 1.2%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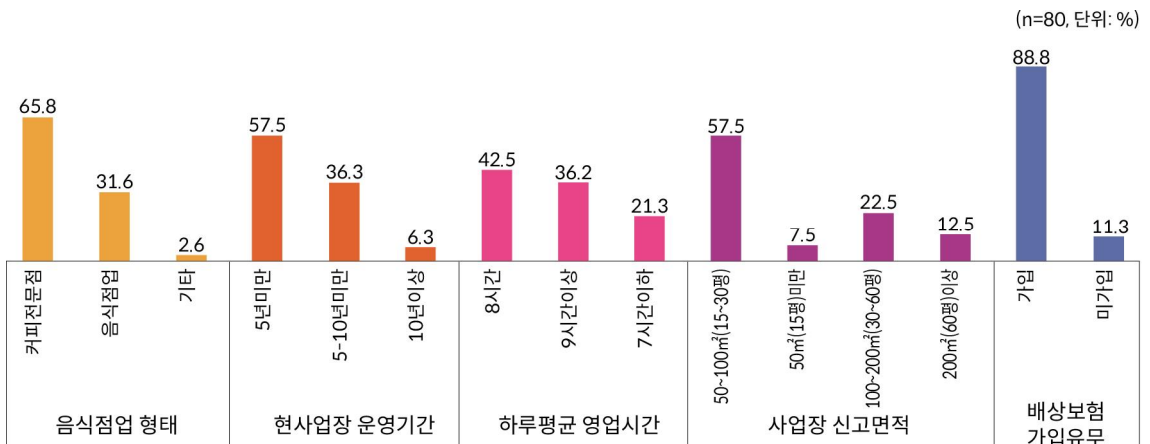
< 그림 1 > 사업주 및 이용고객의 일반적 특성 비교



○ 전체 응답 사업장의 운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장 형태 : 음식점업 95.0%, 숙박업 2.5%, 기타업종 2.5% 순임
- 음식점업 형태 : 커피전문점(휴게음식점) 65.8%, 음식점업 31.6%, 기타 2.6% 순임
- 음식점업 구분 : 서양식 37.5%, 한식 33.3%, 일식 12.5%, 기타 16.7% 순임
- 현 사업장 운영기간 : 5년 미만 57.5%, 5~10년 미만 36.3%, 10년 이상 6.3% 순임
- 하루 평균 영업시간 : 8시간 42.5%, 9시간 이상 36.2%, 7시간 이하 21.3% 순임
- 사업장 신고 면적 : 50~100㎡(15~30평) 57.5%, 50㎡(15평) 미만 7.5%, 100~200㎡(30~60평) 22.5%, 200㎡(60평) 이상 12.5% 순임
- 배상보험 가입여부 : 가입 88.8%, 미가입 11.3% 순임

< 그림 2 > 사업장 운영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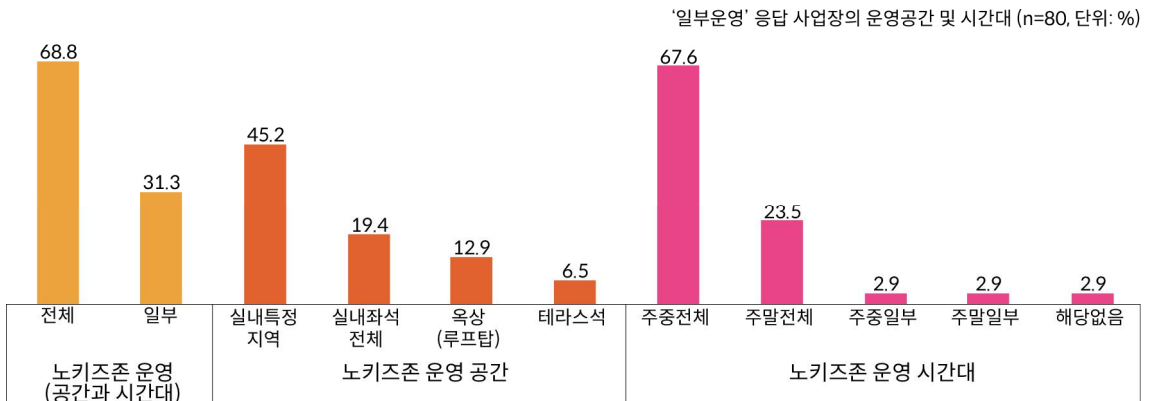


2-2. 조사 결과

◆ 사업장의 노키즈존 운영 현황

- 응답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공간과 운영시간 중 노키즈존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공간과 운영시간 전체를 노키즈존으로 운영한다는 응답이 68.8%, 공간과 운영시간의 일부만 노키즈존으로 운영한다는 응답이 31.3%로 나타남
- 공간과 운영시간의 일부를 노키즈존으로 운영한다고 응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운영 공간과 운영 시간대를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운영 공간 : ‘실내 특정 지역’ 이 4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실내 좌석 전체’ 19.4%, ‘옥상(루프탑)’ 12.9%, ‘테라스석’ 6.5% 순으로 나타났으며, ‘야외 좌석 전체’는 응답이 없었음
 - 운영 시간대 : ‘주중 전체’ 가 67.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주말 전체’ 23.5%, ‘주중 일부’와 ‘주말 일부’가 각각 2.9%로 나타남. 또한, ‘해당 없음’ 응답도 2.9%로 확인됨

< 그림 3 > 응답 사업장의 노키즈존 운영공간과 시간대



◆ 사업장의 노키즈존 제한 연령

- 응답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노키즈존 제한 연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13세 미만 응답이 34.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10세 미만 23.1%, 12세 미만 9.6%, 12세 미만 9.6% 순으로 응답함. 즉, 초등학교 고학년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노키즈존 실태조사 성과보고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비록 영업장의 자율적 운영 측면이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거주 지역 내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아이를 동반한 모든 고객을 영업 방향 요소로 간주하는 운영 방식은 기본 권리 침해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노키즈존 응답 사업주는 자기 조절 능력이 가능한 초등학교 고학년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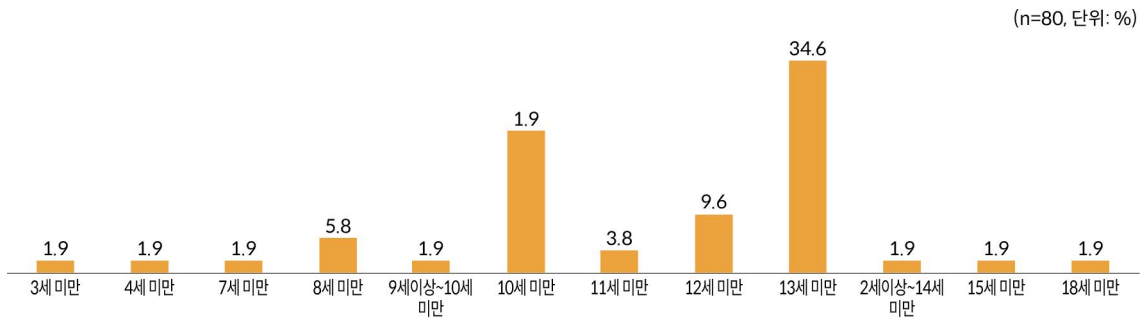
동네 카페에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을 했다가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 카페를 갔다가 거절당할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관광지도 아닌 마을의 카페에 갔는데 아이들과 함께 왔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 <중간 생략> ... 영업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고유한 권리인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특히 제주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에 더욱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24. 9. 30. 「노키즈존 실태조사 성과보고회」 패널 참가자 송○○ 의견]

본 실태조사의 노키즈존 연령 제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조절이 어려운 7세 미만은 5.7%에 불과하였고, 초등저학년까지가 30.8%, 행동조절이 가능한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 포함이 61.4%였습니다. 다만, 출입요청 시 54.6%가 허용(조건부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노키즈존 운영이 발달적 미성숙보다 부모의 관리 책임, 에티켓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 9. 30. 「노키즈존 실태조사 성과보고회」 패널 참가자 우○○ 의견]

< 그림 4 > 노키즈존 제한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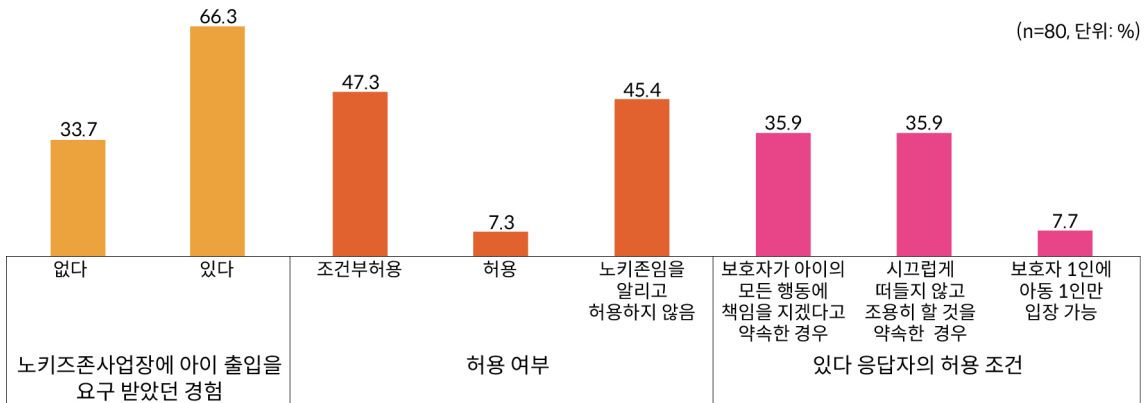


◆ 사업장에 아이 출입 요구를 받았을 때 허용 여부

-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동안 고객이 아이의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 응답이 66.3%, ‘없다’ 응답이 33.7%로 나타남

- 아이의 출입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출입 허용 여부와, 허용했다면 그 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출입 허용 여부 : ‘조건부 허용’이 4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키즈존임을 알리고 허용하지 않음’ 45.4%, ‘허용’ 7.3% 순으로 나타남
 - 허용(조건부 허용 + 허용)한 경우의 조건 : 복수 응답 결과, ‘보호자가 아이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경우’와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할 것을 약속한 경우’가 각각 3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이어서 ‘보호자 1인에 아동 1인만 입장 가능’이 7.7%로 나타남
- 사업장 출입을 허용해 준 사업주들은 보호자가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며, 아이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전제로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와 배상책임 등에 대한 법적 부담을 배제하기 위해 사업장 운영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파악됨

< 그림 5 >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동안 고객이 아이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경험여부와 허용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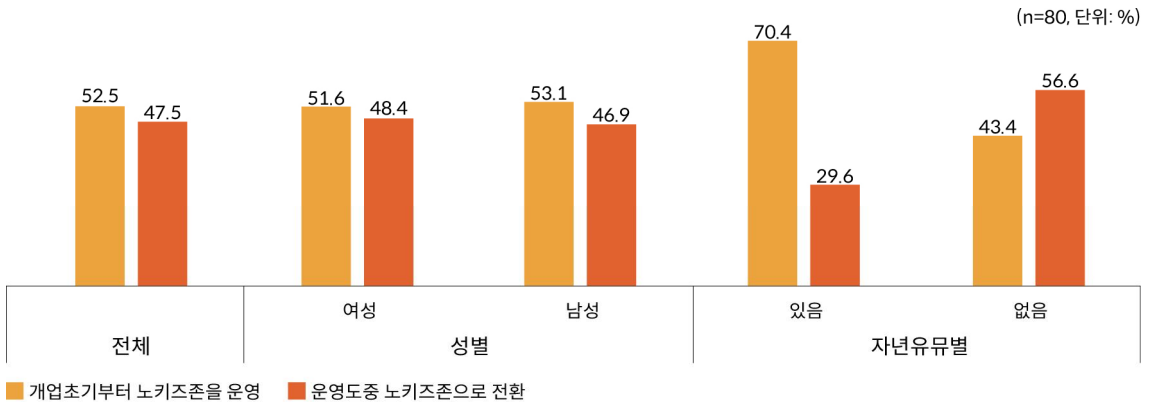


◆ 사업장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한 시점

- 노키즈존으로 운영한 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업 초기부터 노키즈존을 운영’한 비율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운영 도중 노키즈존으로 전환’한 경우는 47.5%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운영 유형을 조사한 결과, ‘개업 초기부터 노키즈존을 운영’한 비율은 남성 53.1%, 여성 51.6%로 남성이 여성보다 1.5%p 더 높았음. 반대로, ‘운영 도중 노키즈존으로 전환’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1.5%p 더 높게 나타남
- 자녀유무에 따른 조사 결과, ‘개업 초기부터 노키즈존을 운영’한 비율은 자녀가 있는 경우가 70.4%, 없는 경우 43.4%로 자녀가 있는 경우가 27%p 더 높았음. 반대로, ‘운영 도중 노키즈존으로 전환’한 비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 56.6%, 자녀가 있는 경우 43.4%로, 자녀가 없는 경우가 13.2%p 더 높게 나타남

< 그림 6 > 사업장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한 시점(성별, 자녀유무별)



- 개업 초기부터 노키즈존으로 운영한 이유를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이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였으며,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한 고객과의 트러블 우려’(11.9%), ‘부모의 양육 미흡으로 인한 갈등 우려’(7.1%), ‘공간 협소로 가족 단위 손님을 수용하기 어려워서’(2.4%), 기타(2.4%) 순으로 나타남
- 노키즈존 실태조사 성과보고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다는 요구와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 시설에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어느 날 가고 싶은 예쁜 커피숍이 있었는데, “노키즈존”이어서 갈 수 없었습니다. 이번 노키즈존 실태조사에서, 노키즈존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왜 노키즈존으로 운영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조용한 가게 분위기, 진상부모님들의 무리한 요구, 안전사고 우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진상부모님도 아니며, 저는 그 커피숍에서 그릇을 깨거나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
니다.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갈 수 없어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중간 생략> ... 영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금지하도록 하면 될 일을 왜 아이들을 동반한 손님 전체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24. 9. 30. 「노키즈존 실태조사 성과보고회」 패널 참가자 김○○ 어린이 의견]

안전을 이유로 또는 고객의 향의로 인해 카페, 휴게음식점, 빵집 등 아동에게 위해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동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있다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2024. 9. 30. 「노키즈존 실태조사 성과보고회」 패널 참가자 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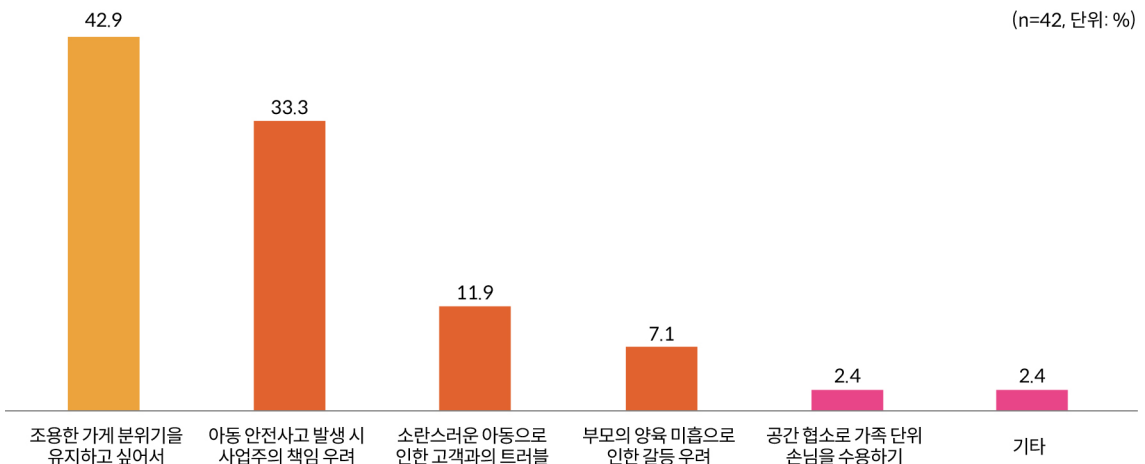
사회의 지탄이 된다고 했을 경우 홍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노키즈존 홍보를 하느냐, 고객들이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카페로 간다는 겁니다. 장사가 되니까 노키즈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24. 9. 30. 「노키즈존 실태조사 성과보고회」 패널 참가자 강○○ 의견]

안전사고 발생하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 차이가 부딪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과 우리사회에서는 이를 풀어가는 대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등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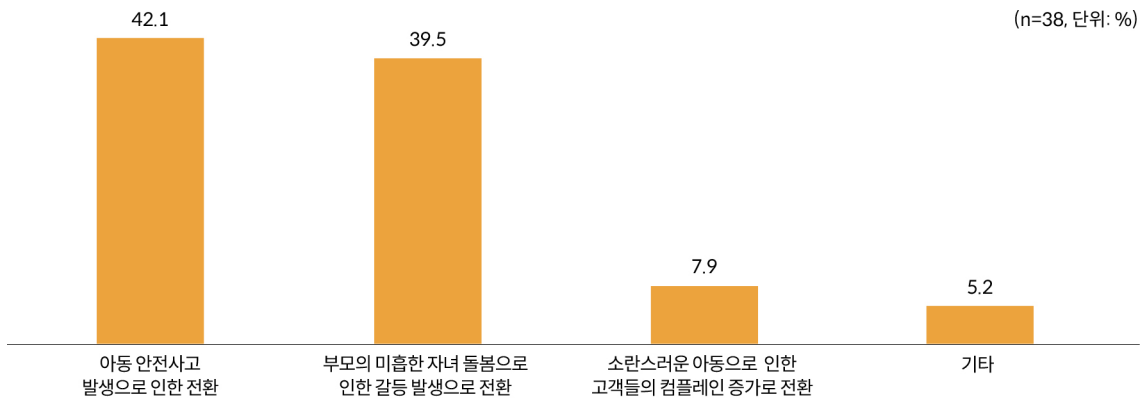
[2024. 9. 30. 「노키즈존 실태조사 성과보고회」 패널 참가자 우○○ 의견]

< 그림 7 > 개업 초기부터 노키즈존을 운영한 이유



- 사업장 운영 중 노키즈존으로 전환한 이유를 우선순위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이 ‘아동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전환’(42.1%)이었으며, ‘부모의 미흡한 자녀 돌봄으로 인한 갈등 발생으로 전환’(39.5%),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해 고객들의 컴플레인 증가로 전환’(7.9%), 기타(5.2%) 순으로 나타남
- 사업 운영 도중 노키즈존으로 전환한 사업주들은 일부 보호자와의 갈등 및 다른 고객에게 발생한 피해 등 다양한 문제를 이유로, 개업 당시와는 다른 운영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됨

< 그림 8 > 사업장 운영 중 노키즈존으로 전환한 이유



◆ 노키즈존 사업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요구

- 노키즈존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혜택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공공장소에서의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가 35.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어서 ‘배상보험 가입비 지원’(21.3%), ‘보호자 및 아동의 교육(인성 및 에티켓 교육)’(18.8%), ‘유아 안전을 위한 공간 인테리어 비용 지원’(12.5%), ‘아동을 위한 물품 구입 지원(유아 식기, 식탁의자, 문구류, 장난감 등)’(8.8%), ‘배상보험 자기분담금 등 기타’(3.6%) 순으로 나타남
- 노키즈존 실태조사 성과보고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아동 안전사고로 인한 보호자와의 갈등을 우려하는 만큼, 배상 책임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이용하는 상업시설에서의 에티켓과 보호자 책임에 대한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노키즈존 업소 운영자의 입장에서 의견과 고충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 <중간 생략> ... 제주지역사회 내 아동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놀이 및 여가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 9. 30. 「노키즈존 실태조사 성과보고회」 패널 참가자 신○○ 의견]

공공장소에서의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 관련, 어른의 역할을 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교육... <중간 생략> ...이 요구됩니다. ... <중간 생략> ... 배상 책임 관련, 배상책임 문제와 관련된 갈등 상황은 어린이집 **공제회 설립추진 시기와 유사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중간 생략> ... 현장을 중심으로 공제제도를 추진하면서, 2008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 <중간 생략> ...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가 확대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및 갈등 해결 지원책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 <중간 생략> ... 아동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사업장 포함)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배상문제 발생 시 적정한 지원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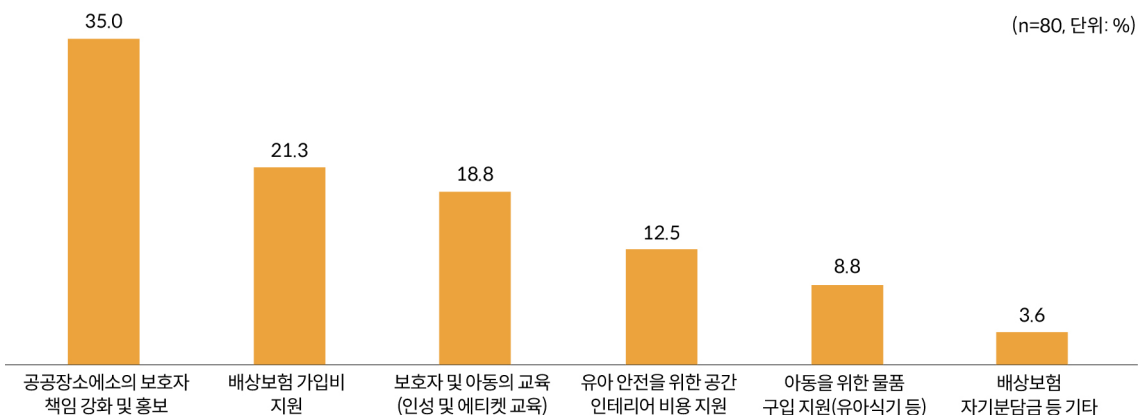
[2024. 9. 30. 「노키즈존 실태조사 성과보고회」 패널 참가자 우○○ 의견]

그 밖에도 사업주가 아이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역 지정은 반대로 역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예스키즈존 또는 오케이키즈존과 같이 특정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보편적인 매장의 한 유형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중간 생략> ...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가장 높게 샀기 때문에 배상 책임 소재에 대한 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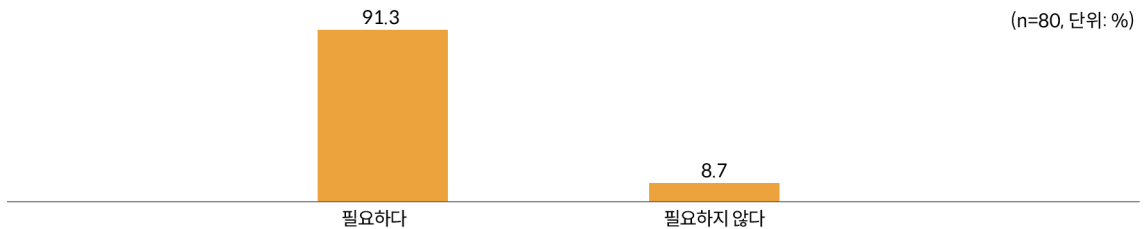
[2024. 9. 30. 「노키즈존 실태조사 성과보고회」 패널 참가자 김○○ 의견]

< 그림 9 > 노키즈존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혜택과 정책적 지원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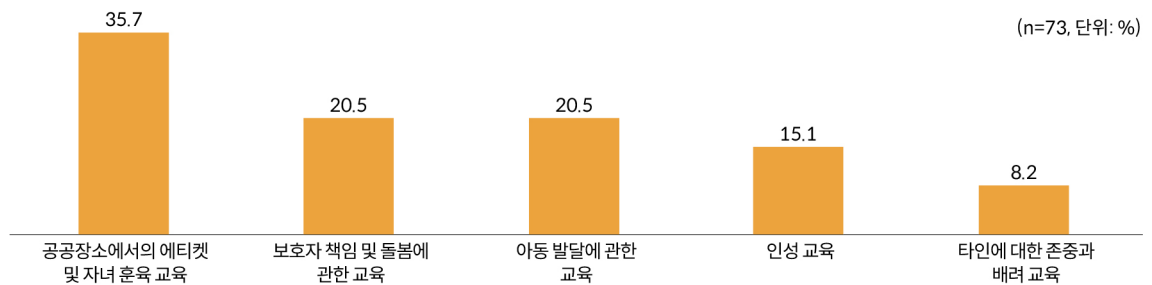
- 아동과 성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양육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홍보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91.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7%로 나타남

< 그림 10 > 아동과 성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양육자와 아동대상의 교육 필요성



- 양육자 및 아동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양육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조사한 결과,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및 자녀 훈육 교육’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보호자 책임 및 돌봄에 관한 교육’(20.5%), ‘아동 발달에 관한 교육’(20.5%), ‘인성교육’(15.1%),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교육’(8.2%) 순으로 응답함
- 사업주들은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동반한 보호자들이 기본적인 에티켓을 준수하며,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다른 이용객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림 11 > 아동과 성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한 양육자대상의 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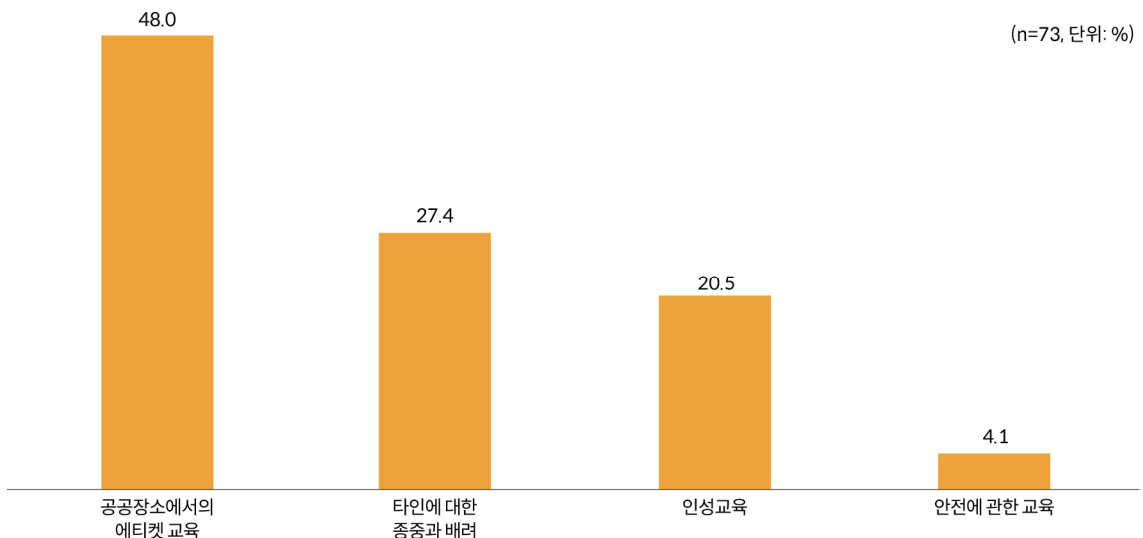


- 아동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공공장소의 에티켓 교육’이 48.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교육’(27.4%), ‘인성교육’(20.5%), ‘안전에 관한 교육’(4.1%) 순으로 나타남
- 사업주들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준수하며, 다른 이용객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노키즈존 실태조사 성과보고회 참석자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노키즈존 문제와 이에 따른 입장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면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효과적인 훈육 방법에 대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는 안전사고 발생하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 차이가 부딪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과 ... <중간 생략>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지원 사업에서 자녀양육과 부모역할, 보호자의 책임, 훈육 등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 9. 30. 「노키즈존 실태조사 성과보고회」 패널 참가자 우○○ 의견]

< 그림 12 > 아동과 성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한 아동대상의 교육 내용



3. 정책적 시사점

3-1. 분석 결과

- 노키즈존의 문제는 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사업주들은 주로 안전사고 예방과 배상 책임 최소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부 사업장은 유연한 운영 방식을 도입해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음
 - 배제 중심의 노키즈존에서 공존을 지향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정책 조율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업 초기부터 노키즈존을 운영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노키즈존 운영이 단순한 상황적 대응이 아니라, 초기 영업 전략이나 사업주의 신념에 따라 결정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줌. 아울러, 개업 당시 시장 환경과 고객의 요구를 신중히 고려했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음
- 주목할 점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남성 사업주가 여성 사업주보다 개업 초기부터 노키즈존을 도입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 이는 남성 사업주가 사업 운영에서 환경적 통제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는 자신의 경험과 환경을 반영해 개업 초기부터 노키즈존을 운영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없는 사업주는 사업 도중 필요성을 느껴 노키즈존으로 전환한 비율이 더 높았음
 - 사업주의 개인적 배경이 노키즈존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며, 자녀 유무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해소하고 모든 사업주가 포용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함
- 따라서, 사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또한, 보호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에티켓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제주 지역에서 아이와 어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3-2. 시사점

◆ 인증제 도입을 통한 자율 참여와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장이 협력하여 포용적 공간 운영에 대해 자율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 ‘아동친화적인 상업시설 인증제’ 도입을 통해 자발적으로 아동과 어른을 환대하는 사업장 조성 확대가 필요함
-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준비해야 함
 - 아동을 배제하는 노키즈존을 줄여 나가고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아동과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공간을 확대하는 정책방향 수립이 요구됨

◆ 아동과 어른이 이용하는 공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 노키즈존이 설정된 장소에서는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공간 또는 별도로 아동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대형 상업시설 내에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별도의 ‘가족 존(Zone)’을 설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장이 협력하여 아동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음
 - 민간 사업장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인증제도와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아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확산

- 아동을 배려한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통해 아동친화적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고객이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이용하는 아동친화적 공간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효과적일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친화적 공간 확대를 위한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1호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2025년 4~5월 운영 예정)과 ‘우리동네 놀이터 지도’ 제작·배포 등의 사업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공간에 대한 정책적 전략사업이 될 수 있음

-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있는 행동과 에티켓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 강화를 통해 아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사회 조성을 위한 상생 환경 조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따뜻할 온溫) 마을이 키운다’ 캠페인 영상 제작·배포, 인성교육, 가족사진 공모·전시 사업 등은 지역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인식 개선과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 Jewfri 브리프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참고문헌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2024), 「제주특별자치도 노키즈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_____ (2024), 「육아공감」, 2024(21),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노키즈존·키즈존 지도(2024.12.10.), <https://sites.google.com/view/yesnokids>

JIBS제주방송(2024.9.30.), 「노키즈존, 편리? 차별?.. 논란의 불씨 여전히 활활」,

_____ <http://www.jibs.co.kr/news/replay/viewNewsReplayDetail/2024093018545731724?feed=na>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632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27(일도일동)

✉ jewfri@jewfri.kr 🏠 www.jewfri.kr

비매품/무료
93330



9 791193 547427

ISBN 979-11-93547-42-7